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김효진 안방극장 컴백

드라마 '매리는 외박중'

텔런트 김효진이 KBS 2TV의 새 월화드라마 '매리는 외박중'으로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성균관 스캔들' 후속으로 11월 초 방송 예정인 드라마 '매리는 외박중'은 원수연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로, 가상결혼을 통해 젊은이들의 결혼관과 사랑, 꿈을 그린다.

앞서 여주인공 위매리役に 문근영, 매리와 가상결혼을 하는 인디밴드 보컬 강무결役に 장근석, 능력 있는 콘텐츠 기획 투자자 정인役に 김재욱이 캐스팅됐다.



“여성 대통령 활약 기대하세요”

수목드라마 '대물' 고현정

SBS 새 수목드라마 '대물'을 통해 여자 대통령으로의 변신을 앞둔 고현정이 기대감을 드러냈다.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후속으로 6일 첫선을 보이는 '대물'은 여자 아나운서 서혜림(고현정)이 인생의 고난을 겪으며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다.

고현정은 “드라마를 시작하기 전에 걱정이 많이 됐는데 든든한 감독 아래서 잘 찍고 있다”며 “드라마라는 좋은 매개체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속을 풀어드릴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현정이 맡은 혜림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중근기자였던 남편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와 친환경운동을 펼치다 우연한 기회에 보궐선거에 나서며 정계에 입문한다. 힘없는 자가 고통받는 불합리한 현실을 절감한 혜림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대통령에 도전, 서민들의 지지를 얻고 당선된다.

“우리 드라마가 대사가 굉장히 직설적이어서 재미있어요. 실제 정치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못할 수 있는 말들을 혜림은 거리낌 없이 막 해대요. 혜림이 마음에 담았던 말을 원없이 맨땅에 헤딩하는 기본으로 해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원작이랑 현실이랑 잘 어우러져 나가게 하려고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는 “연기를 할 때도 사심이 없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마음을 비우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계층의 사람은 실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를 60% 정도 연기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극적인 허구의 인물을 넣어서 원없이 소리를 질러보자는 생각으로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혜림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부분이 마음에 든다”며 “사실 정말 내일 일은 모르지 않나”며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남편이 죽으면 계속 심각할 것 같지만 밥을 먹게 되고 자식 때문에 웃게 되는 부분이 마음에 든다”고 전했다.

'선덕여왕'의 미실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미실이 될 수 없는데 되는 꿈을 꾸 인물이

라는 점에서 혜림도 기본적으로 비슷하다”며 “다만 혜림은 정치와 대통령에 뜻이 있던 여자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미실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현정은 드라마에서 자신의 조력자인 열혈 검사 하도야 역의 권상우와 경쟁자인 엘리트 정치인 강태산 역의 차인표와 호흡을 맞춘다.

그는 “물 다 유부남이라 좀 아쉽기도 하다”며 “사실 유부남, 총각 별로 안 가리니 항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긴장들 하셔야 한다. 빈틈이 보이면 바로 공략한다”며 농을 던졌다.

복귀 후 '선덕여왕'의 아심가, '히트'의 열혈 여형사, '여우야 뭐하니'의 훈수 잡자기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해 온 고현정은 작품을 통해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제 나이가 마흔인데 예전에 했던 연약하고 청순한 역할을 그리워하진 않아요. 그때 실컷 했던 거 같아요. 지금 이 나이를 즐길 수 있는 캐릭터를 하고 싶어요. 선배로 위치가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난 아무것도 몰라요' 식의 연기를 하는 것도 민폐죠. 지금도 충분히 여성스러운 뎀 여성스러워요. 다만 자연스럽게 제 모습에 맞는 캐릭터로 변해 가고 있는 거죠.”

그는 “연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 순간 긴장을 덜하게 된다”며 “그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며 프로다운 모습을 보였다.

“내가 아는 게 절대 다가 아니에요. 연기를 할 때는 최선을 다해 설득력을 갖고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밸런스를 가져야 해요. 어떤 역할을 하면서 비슷한 처지니 내가 너무 잘 알아서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는 “긴장이 풀리는 모습이 보이면 중간중간 지적해 달라”며 “24시가 끊지 않은 여정이라 긴장감을 높여서 연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욕망의 불꽃' 신은경

“난 욕망과 야망의 화신 데지 않게 조심하세요”

2일 밤 9시45분 첫방송하는 MBC 주말 드라마 '욕망의 불꽃'(각본 정하연, 연출 백호민)에서 여주인공 나영 역을 맡은 신은경(37)이 자신의 배역에 대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히라 같은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신은경은 “욕망과 야망으로 뿔뿔 뿔뿔 뿔뿔이다. 몸도 뜨겁고 마음도 뜨거운 불꽃 같은 여자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봤던 스칼렛 오히라와 비슷한 느낌이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싶어하는 인물이다. 일상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할 만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캐릭터다”고 덧붙였다.

이 드라마는 재벌가를 배경으로 욕망과 탐욕으로 얽혀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신은경이 연기하는 나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성격의 소유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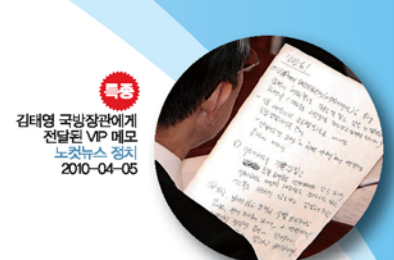
나영은 재벌가의 아들과 결혼하기 위해 언니를 배신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음모를 꾸미기도 한다. 신은경은 조민기와 부부로 호흡을 맞추며 서우, 유승호와와는 각각 모녀와 모자 관계로 출연한다.

“여태껏 이렇게 입체적인 인물을 연기해본 적 없었다”는 신은경은 “너무 강한 캐릭터라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출연을 망설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신은경은 “쉽게 일상적인 모습을 연기할 경우가 드물다. 한순간도 편하게 촬영한 적이 없다”며 “하지만 감정을 분출하는 캐릭터여서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 부담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로 속으로 감정을 사하는 역할이 많았거든요. 이번 촬영에서는 하고 싶은 말도 실컷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빨리 스트레스를 풀려고 촬영 시간을 기다릴 정도예요.” /연합뉴스

- 누구나 원하지만 누구도 얻지 못했던 새로운 뉴스
- 깊이와 미래를 보여주는 뉴스
- 언제 어디서나 모든 매체에서 만날 수 있는 뉴스
-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 대한민국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뉴스



CBS가 대한민국 No.1 TV뉴스채널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뉴스의 대명사’ CBS가 ‘인터넷 뉴스의 최강자 노컷뉴스’의 신화를 넘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보도전문채널(보도PP)에 도전합니다.

CBS와 미래를 함께 하실 투자자를 찾습니다.

CBS는 섬김과 나눔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자신있게 약속드립니다.

- 파트너 절대 존중
- 투자자의 조기 실현
- 주주 가치 극대화

참여방법: 자세한 참여방법은 CBS 홈페이지(www.cbs.co.kr)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연락처: 서울 본사 신규미디어사업본부 02-2650-7080~4 / 전국CBS 지역방송본부 총무국
이메일: goodnews@cbs.co.kr